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철거 요구

기독교 2천명 가두시위 '빈축'

원주사암련 등 '비상대책위' 결성

원주 경찰서내 경승실에 봉안된 불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주지역 기독교계의 주장이 급기야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어져 사회적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 기독교 협의회는 14일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경찰서내 불상철거를 위한 기독교 연합예배 및 가두 시위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종인 불상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경찰서장과 경무과장의 비호아래 불상을 설치하는 등 법당화 되고 있다"며 "경찰규정상의 부착물(현상범 수배전단, 서장훈시 포스터) 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고 불상철거를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국 경승실 대부분에 불상이 건립돼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인 불상철거 운동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원주경찰서 윤영환 서장은 "경승실에 설치된 불상은 경승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강원지역에도 강릉, 고성, 속초 경찰서에 이미 불상이 봉안됐지만 문제된 곳은 한군데도 없으므로 기독교계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원주사암련과 원주불교 청년회 등 원주지역 불교 대표 20여명은 1군사령부 법당 법웅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종교화합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일휴(원주사암련 회장), 원행, 운봉(전 사암련 회장), 경혜(성문사 주지), 김문기(원주불교 신행단체연합회 상임 공동회장) 등 7명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종교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 경승실의 불상설치 철거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하지만 훼불 등 구체적인 불교 폄하의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번 불상 봉안 항의 시위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신문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불상 철거가 결정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장기적 투쟁을 조장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14일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열린 '원주경찰서 불상철거 기도 연합예배'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광적인 기도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현장에서 만난 원주 시민 강만식씨(53 · 학성동)는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종교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강씨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무관심하다"고 말해 이번 시위가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함을 반증했다.

현재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 등 전국 280여 경찰기관내 불상이 봉안된 경승실은 54곳, 십자가가 설치된 경목실이 58곳, 성모마리아상이 설치된 경신실은 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김영환씨는 "경찰관들에게 신앙적인 전도사업과 포교사업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준 것이 경승실과 경목실 설치의 근본 목적"이라며 "이를 위한 의식을 할때 불상과 십자가, 성모마리아상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기독계의 불상 철거 주장을 일축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통일돼지' 10억여원 모금

정토회 천일정진특위 600일 기념 워크숍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산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24시간 정진 600일 기념 워크숍을 열고, 북한동포의 민족고(苦) 해결과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북한동포돕기의 현재 의미와 새로운 통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은 "분단의 고통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간절히 느끼기 위해 24시간 기도 철야정진에 돌입하게 되었다"면서 "한주 한끼 굶기, 통일돼지 키우기 등을 통해 굶주리는 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모금활동에 동참해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통일운동"이라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의 식량 및 의약품 대량(연 5000억원) 지원, 기업차원의 설비투자 등 경협, 민간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적십자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정토회의 24시간 1000일 정진에는 하루 평균 27명, 13일 현재 1만5984명이 동참했다. 매일 기도자는 1명, 주1회 이상 기도자는 평균 80명, 월1회 이상 기도자는 160명에 달했다. 또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돼지'로는 총 10억8403만원이 모금됐다.

김재경 기자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대구 관음사 납골당 구청 신고필증 교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납골당 설치를 중단했던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가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 관음사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이 16일 납골당 신고필증을 관음사에 교부했다. (본지 332호 23면 참조)

관음사는 지난 8월 경내에 1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면 남구청에 신고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불투명했다. 당시 남구청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우학 스님은 "종교 시설 내 납골당 설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님비 현상을 극복한 남구청의 결정이 다른 시, 도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몸과 마음 변화 주목"

인드라망 5차 화엄광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3일 조계사에서 제5차 화엄광장을 개최했다. '몸 다루기, 마음 다루기'를 주제로 열린 화엄광장은, 불자들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찰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정토회 정토법당원장 유수스님, 위빠사나 수행자 김열권 씨 등은 "몸과 마음은 무명과 집착으로 인해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이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도량"이라는 데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움직여 나가는 가에 따라 가장 절친한 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수스님은 "깨어있는 수행자는 몸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불자라면 일상에서 자신도 평화로우며 주변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 찾는 외국인 일본·미국인 많다

한달간 2천여명 방문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고, 또 나라별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으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까.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에 대해 국적별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일본인이 1,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705명, 말레이시아인이 97명, 중국인 79명 순이었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독일-홍콩-영국-캐나다-프랑스 순으로 집계됐다.

방문 유형은 개인별, 단체별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 방문객은 거의 단체 방문객이고,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권 방문객은 개인 방문이 많은 것이 특징. 또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법당과 단청이었으며, 사찰 구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고 외국인 안내소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조계사가 사찰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사찰 안에 커다란 주차장이 왜 있는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관람객들 중 자국으로 돌아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는 한 달 평균 5~6건에 이르며,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와 조계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한 포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은평도서관 개관 인덕원, 수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원장 성운)은 15일 서울 은평구 구립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3시 개최된 개관식에는 성운스님, 고건 서울 시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도서관 야외무대에서는 식전행사로 풍장대 21의 사물놀이, 은평구립합창단 합장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성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책은 사람을 만들고, 책을 읽는 민족은 발전한다"며 "은평구립도서관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덕원이 은평구로부터 수탁 받은 구립도서관은 99년 1월 착공, 총 170여 억 원이 투자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세워졌다. 여기에는 900석의 열람실 비롯해 자료실, 문화교실, 정보검색코너, 향토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설치됐다. 오종욱 기자

안산시민 불교예술제 28일 사암련 행사로

안산사암연합회(회장 지허)가 주도하는 제5회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가 28일 오후 7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지난 94년 첫 공연을 시작한 불교예술제는 지난 97년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행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지역 30여 사찰 스님들의 원력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동국대 교수 법현스님이 이끄는 범패, 승무, 법고춤 등 전통 불교예술공연과 성악가 정률스님의 찬불가 독창, 혼성불자중창단 LMB싱어즈의 연주, 천수사 불교보컬그룹 도솔천의 불음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 사찰과 신도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에 불교를 알리는 방편으로 불교예술제를 열게 되었다"는 지허스님은 "이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티베트 난민 지원 선우회관 건립 '서원'

우리는 선우 창립 10주년 행사

◇우리는 선우의 10주년을 회향하고, 앞으로의 서원을 밝히기 위해 선우들이 꽃등을 밝히고 있다.

10년 전 불교를 바로 세우고 맑은 사회, 열린 사회, 따뜻한 사회를 완성시키겠다는 서원으로 결성된 재가불자들의 신행모임 (사)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가 1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종서 박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선우는 단체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한 불단이었다"면서 "그간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꾸준히 이끌어준 박광서, 남지심 대표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10년의 세월동안 불교계에 신선감을 줬다"면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선우야 말로 지성불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치하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선우가 되길 당부했다.

약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과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을 포함한 지도법사단, 김종서 박사를 포함한 고문단, 10여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우리는 선우'는 그동안 남을 위한 등달기 운동을 비롯, 군포교와 청소년포교를 담당하는 화랑선우회, 사회복지와 장례봉사 등을 담당하는 백련선우회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우리는 선우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승려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했고, 97년 몽골 정부와 협의해 울란바토르에 '한몽불교문화원'을 설립하고 양국간의 불교 교류 및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박광서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보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 재가불교의 새로운 신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우는 우선 티베트 문화를 지키고,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한다. 또한 선우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자신의 시간 3% 이상을 수행과 봉사에 사용하는 선우결사도 전개한다.

오종욱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四柱命理(사주명리)와 일반 五行術(오행술)의 限界(한계)를 克服(극복)시킨

六壬來情秘法(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改訂增補版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영이상법 (귀신침범 · 신소탈 · 빙미부정 · 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剿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형이상학인 위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이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이지, 못 고칠 병이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기 수조로운지 더딘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 · 신시(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 · 음양오행가 · 신명제자 · 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19호 일신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은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장소로 참석하시어 활인전역의 당오에 우문사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복자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